

## 『사만』에 나타난 아유 우따미의 현실인식에 관한 고찰\*

김 장 겸\*\*

### I. 들어가는 말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아유 우따미(Ayu Utami)는 권위주의 정권인 수하르토 시대의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수단으로 독특한 문체와 저널 형식을 결합한 새로운 문학 양식을 탄생시킨 작가로 조명 받고 있다. 이는 그가 유명한 시사 주간지 「템포(Tempo)」<sup>1)</sup>를 비롯한 유명 언론사의 저널리스트로서 수하르토 정권의 언론탄압과 부정부패에 맞서 투쟁하면서 경험한 저널리즘과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면서 얻은 문학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소설문학을 선보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학형식을 다룬 작가는 목타

---

\* 이 연구는 2011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부족한 논문에 대해 유익한 보완을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부교수(이메일: peneliti@hufs.ac.kr).

1) 시사 주간지 템포(Tempo)는 1970년대 초부터 1994년 정간될 때까지 수하르토가 권력을 이용하여 친인척이 설립한 재단인 Yayasan Tikora, Yayasan Seroja, Yayasan Dharmais, Yayasan Supersemar, Yayasan Dakab, Yayasan Harapan Kita, Yayasan Purna Bhakti Pertiwi 등에서 저지른 비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실음으로서 1994년 「인도네시아 라이(Indonesia Raya)」일간지를 비롯하여 「템포」 시사 주간지가 정간되었다.

르 루비스(Mochtar Lubis)<sup>2)</sup>였다. 그러나 목타르 루비스는 저널리스트와 문학요소의 결합이 소설기법 상으로 긴밀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반면, 아유 우따미는 두 요소의 긴밀한 결합과 구성, 그리고 도식적이지 않고 파격적인 독특한 문체로 인해 소설의 미적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유 우따미는 그의 처녀작인 『사만(Saman, 1998)』<sup>3)</sup>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악용한 종교, 가부장제, 여성의 성, 그리고 부조리한 권력 남용과 정경유착 등의 현실 문제를 신세대 여성의 감수성과 저널리스트로서의 글로벌 시각과 비판적 안목으로 제기하였다. 그의 비판적 안목이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와 맞물려 『사만』은 인도네시아 사회 개혁의 아이콘(icon)으로 자리 잡았다(Zurmailis 2009: 111).

아유 우따미의 『사만』은 1998년 자카르타예술위원회의 문학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인도네시아의 사회변화를 주도한 소설작품으로 인정받아 네덜란드 클라우스 왕자 상(Prince Claus Prize)을 수상하였다. 이로 인해 『사만』은 1998년 4월부터 6월까지 7번의 출판이 이루어졌고, 2006년 1월까지 무려 25번이나 출판되어 8만부가 팔렸다. 이는 인도네시아 문학사에서 전무후무한 출판기록과 판매기록을 세운 것이며, 또한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일본어, 체코어,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 출판됨으로써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Wahyudi 2005: 97).

2) 목타르 루비스는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문학가로서 일간지 「인도네시아 리아」와 문예지 「호리손(Horison)」을 발행하였으며, 장편소설인 Tak Ada Esok(1950), Jalan Tak Ada Ujung(1952), Senja di Jakarta(1963), Tanah Gersang(1964), Harimau! Harimau!(1975), Maut dan Cinta(1977)과 단편소설 Si Djamal(1950), Perempuan(1956) 등이 있다.

3) “사만”이란 분명한 증거 없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고발하는 의미를 가진 멀라유어의 고어이다. 이 소설의 제목인 『사만』은 등장인물의 이름이외에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경험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소설 속에 내포된 “사만”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사건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외의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은 아유 우따미의 『사만』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시깃 스티아완(Sigit Setiawan 2001)의 「사만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리리스 룡간니스(Riris Rengganis 2002)의 「아유 우따미의 소설작품 사만과 라룡의 성적 연구」, 이스띠꾸마툴 하야띠(Istiqumatul Hayati 2000)의 「아유 우따미의 소설 사만의 주제 연구」, 주르마이리스(Zurmailis 2009)의 「개혁시대의 자카르타 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최우수 소설들: 발생구조주의 연구」, 마칭(Soe Tjen Marching)의 「아유 우따미의 사만에 나타난 여성의 성 묘사」, 그리고 시얼스(Laurie J. Sears)의 「아유 우따미 읽기: 인도네시아의 아카이브와 트라우마 연구」 등이 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사만』의 형식(구조)적인 측면과 내용(주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분석들이지만 마칭과 시얼스는 여성의 육체적 이미지와 전통적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이처럼 『사만』에 반영된 특정 주제와 구조, 그리고 성에 대한 묘사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작가의 현실인식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품을 통해 드러낸 작가의 현실인식은 작가가 처한 시대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유 우따미가 선도한 꽃띠문학세대(Angkatan Chik-lit)<sup>4)</sup>의 등장은 수하르토의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탄압과 부정부패, 그리고 가부장제와 여성의 억압된 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수하르토 정권은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이권과 정경유착의 폐해를 파헤치는 언론을 탄압하는 동시에 가부장제를 강화하여 여성의 종속성을 심화시켰

4) 인도네시아의 문학 비평가들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문학적 경향을 추구한 세대를 일컬어 꽃띠문학세대 또는 향기문학세대로 라고 명명했다. 이 꽃띠문학을 주도한 작가들은 20-30대의 젊은 여성으로써 아유 우따미(Ayu Utami)를 비롯하여 디에나르 마에사 아유(Djenar Maesa Ayu), 피라 비수끼(Fira Basuki), 노바 리안띠 유슈(Nova Riyanti Yusuf) 등이 있다.

다. 그는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시사주간지 『템포(Tempo)』를 통해 표출하였지만 『템포』지가 권위주의 정권의 이권과 부정부패를 파헤쳤다는 이유로 1994년 정간되자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맹(AJI)을 결성하여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한편, 정치 민주화를 위한 우탄까유공동체(Komunitas Utan Kayu)를 결성하여 암약하였다(Zurmailis 2006: 158). 그러나 부조리한 현실문제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인식과 투쟁의 목소리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막히게 되자 자신의 비판적 인식과 목소리를 보다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소설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게 된다. 그의 소설작품인 『사만』은 수하르토 정권에서 금기시되었던 권력과 정경유착, 그리고 가부장제와 여성의 성 문제를 다루어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문학 비평가인 다모노(Sapardi Djoko Damono)는 “미래의 인도네시아 소설은 여성작가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라고 평가했으며, 망운위자야(Y.B. Mangunwijaya)는 “이 소설은 정치, 사회, 인간, 종교 그리고 믿음에서 정말 성숙하고 진솔하다”라고 평가하였고, 파룩(Faruk H.T.)은 “인도네시아 현대문학사에서 우마르 까얌(Umar kayam)과 이완 시마뚜팡(Iwan Simatupang)의 작품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평가한바 있다(Faruk 2004: 24). 반면, 안와르(Rosihan Anwar)는 “이 소설은 포로노물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포로노 문학으로서 인도네시아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소설작품”이라고 혹평했는가 하면, 로에끼또(Medy Loekito)는 “사만은 인도네시아의 윤리와 도덕에 어울리지 않는 서구의 성적 자유를 묘사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Marching 2007: 39).

인도네시아 문학 비평가들조차 『사만』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그가 저널리스트와 작가로서 수하르토 정권에서 금단한 가부장제, 권력남용, 정경유착 그리고 성문제를 인도네시아

사회의 전면에 끌어내고 공론화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사만』이 직설적인 방식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독자들 사이에서도 찬성/반대와 긍정/부정의 이분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의 소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만』에 반영된 아유 우따미의 현실인식을 가부장제와 여성의 성, 그리고 권력남용과 정경유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사만』의 배경 및 구성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개혁의 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는 아유 우따미의 『사만』은 인도네시아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수하르토 정권에서 금기시 해온 정치, 종교, 성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지 못했던 인도네시아의 소설이 1998년 대 이후에는 민주 의식과 글로벌 감각을 겸비한 30대의 젊은 여성작가들이 금단의 주제들을 소설에 녹여냄으로써 주제의 영역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소설이 부흥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유 우따미를 포함한 꽃띠문학세대는 사실 70년대 이후 출생하여 인도네시아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풍요를 경험하였고, 글로벌 환경과 물질 환경이 기존 문학세대와는 다른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 세대들은 집단주의적 성취지향이라기 보다는 개인주의적 성취를 추구하고,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전통적 윤리보다는 쾌락과 개성을 추구하고, 탈권위적이고,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감각주의 세대라고 할 수 있다(Pujiharto 2002: 16). 이런 특성과 가치관을 지닌 꽃띠문학세대는 남성위주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수하르토 정권(Orde Baru)이 국가의 통제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여성의 권리보다는 의무(Panca Dharma Wanita)를 강요한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출하는 동시에 부조리한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꽃띠문학세대는 대학에서 체계적인 문학교육을 받은 덕택으로 다양하고 탄탄한 소설이론을 바탕으로 기성세대의 소설작법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기법과 과격적인 문체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이 꽃띠문학세대 가운데 선구자는 단연 아유 우따미였다. 그는 『사만(Saman 1998)』, 『라룽(Larung 2001)』, 『빌랑 안 후(Bilangan Fu 2008)』 등의 장편소설을 통하여 이전에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수하르토의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과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성적 구속에서 벗어난 신여성들의 자유분방한 성관계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인식을 뒷받침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국내외의 다양한(대도시, 해양, 지역, 마을) 공간적 배경과 독특한 시간적 흐름의 구성방식(르뽀르 따주, 피드 백, 플래시 백), 그리고 다층위적 인칭 서술(1인칭, 3인칭)과 이중 인물 묘사(위스, 사만)를 선보임으로서 전통적 소설 구성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설양식을 선보였다.

아유 우따미의 『사만』은 1966년부터 1998년까지 32년 동안 수하르토 권위주의 정권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주요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1990년대로 삼고 있는 한편, 권력과 가부장제 그리고 성의 속박의 상징인 자카르타는 물론 자유의 상징인 뉴욕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만』의 시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1996년 5월 28일 센트럴 파크”로 시작되어 “1993년 2월 석유 채굴지역인 남중국해”, 1962년 “프라부물리”, “루북 란따우”의 이주 지역까지 34년의 시간이 플래시백 된 이후에 원래 시점과 장소로 피드백이 되고 있다. 또한 사만과 야스민, 라일라와 시하르, 사만과

우빠, 라일라와 사쿤탈라 사이의 사랑과 성에 대한 관념논쟁, 그리고 로사노와 시하르, 공권력과 사만 및 안손 사이의 권력남용에 대한 논쟁과 투쟁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장소와 일시가 결합된 르포르 따주 형식<sup>6)</sup>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플래시백과 피드백 기법을 사용하여 현재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과 연계시킴으로써 사건의 각 의미 단위들을 하나의 통합된 의미 단위로 확장시킨다. 예컨대, 그는 플래시백과 피드백 기법을 사용하여 사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사건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물을 상호 긴밀히 연결시켜 이 구성 요소들 간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확장시킨다.

아유 우따미는 이야기 속에 다양한 사건적 요소와 사물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플래시백과 피드백을 통해 사건적 요소인 사건의 장소와 시간이 이야기 속의 사물적 요소인 인물에 잘 결합되어 탄탄한 소설의 구성과 묘사를 보여준다. 이는 아유 우따미가 기자로서의 인지한 사건과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서사물인 소설에 잘 결합시켜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물의 서술에 있어서도 1인칭과 3인칭을 넘나드는 다층위적 서술자로<sup>7)</sup>서 전통 소설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의 구성양식을 추구하고 있다. 기성 작가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이면서 비형식적인 새로운 소설구성과 기법, 그리고 문체를 선보이면서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은 신세대 여성작가 또는 꽃띠문학세대를 탄생시킨 작가

6) 사회적 현실을 보고자의 주관을 가미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문학형태로서 본 소설은 수하르토 정권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개관적으로 기술하는 동시에 사만과 야스민 사이의 사랑이야기를 일기 형식을 빌어 구체적인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사만』. 전태현 역. pp 273-293 참조.

7) 아유 우따미는 『사만』의 등장인물 가운데 사쿤탈라(3인칭)를 나(1인칭)로, 나(1인칭)를 사쿤탈라(3인칭)으로 인물을 묘사함으로써 다층위적 인칭 서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로 인식되고 있는 아유 우따미는 최근 인도네시아 문단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서있다.

### Ⅲ. 신질서(Orde Baru)시대에 대한 현실 인식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억압적이고, 부패했던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되기 불과 몇 주 전 출간된 아유 우따미의 『사만』은 절묘한 타이밍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아유 우따미는 저널리스트로서 수하르토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권력형 부정축재, 권력 남용, 정경유착, 언론탄압 등에 맞서 우따미 유 공동체를 결성하여 1998년 5월 21일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인도네시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였다.<sup>8)</sup> 또한 그는 수하르토 정권에서 금단의 영역이었던 여성의 성 개방, 인종과 종교적인 차별, 그리고 국가통제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부장제 강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및 성의 자기 결정권 문제들을 사회 전면에 끌어내고 공론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수하르토 시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인식과 투쟁을 고스란히 『사만』에 녹여 내고 있다. 따라서 『사만』은 아유 우따미의 현실인식을 추적할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인식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하르토 정권의 부조리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도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

8) 전태현 옮김, 2009. 『사만』. 청년사. p. 4-5.



## 1. 가부장제와 여성의 성

아유 우따미의 『사만』은 수하르토 정권이 강화시킨 가부장제에 역행하는 여성의 성문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불고 있는 급진적이고 왜곡된 서구화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의 가부장제<sup>9)</sup>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아유 우따미는 수하르토 시대에 국가의 통제와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혼인법(Undang-Undang Perkawinan)과 여성의 5대 의무(Panca Dharma Wanita)<sup>10)</sup>를 제정하여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성을 강화시킨 것은 바로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순결을 지키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며 가사 일을 전담하는 역할로 국한되었고, 여성의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치녀성을 남편에게 받치는 여자의 선물”이라는 사쿤탈라 부모의 인식은 가부장제의 고루한 전통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거인(서구인)에게 치녀성을 주겠노라고”라고 밝힌 것은 여성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에 대한 사쿤탈라의 거부 표시로서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찻순

9) 인도네시아 사회의 가부장제에 대한 논란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유산 상속, 그리고 성을 기준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사회 특히 자바사회의 가부장제는 힌두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 라마야나의 주인공 라마와 스리의 이야기에서 라마의 용맹성과 스리의 순종성, 이슬람교의 일부 다처제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자바의 농경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노동력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부장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10) 수하르토 정권은 가부장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여성의 주요 역할을 가정으로 제한함. 즉 여성은 결혼하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 공동체의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함.

가락으로 그것(처녀성)을 찢어버렸고 쓰레기에 불과하였다”라고 말한다. 이는 가부장제하에서의 여성의 순결에 대한 강요와 구속의 고리를 끊는 일종의 자기의식이자 자기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처녀성을 쓰레기라는 등가물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의 처녀성이 결코 여성의 성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한다는 자바의 가부장제에 대한 반항의식의 표현이다.

아유 우따미는 사쿠타라와 거인의 성관계가 거인의 일방적인 요구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인과의 사랑에 빠진 사쿠타라의 잠재된 성적 욕구가 표출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쿠타라는 사랑의 감정과 성적 욕망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킨다. 그녀의 심리적 갈등은 여성의 성적 욕구를 억압하고 금기시하는 가부장제에서 기인한다. “아버지는 밤마다 나를 침대에 묶어 놓고 사랑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에서처럼 아유 우따미는 여성의 성적 욕구를 극도로 통제하고 규범화 하는 자바의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성적 욕구를 적절히 표현하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해 비인간적인 성의 억압과 통제를 가하는 한편, 여성의 성을 지나치게 규범화 또는 신비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성적 욕구를 금기시하는 남성의 성적 관념이 고착화되었다고 본 것이다. 자바 사회에서 성의 신비화는 여성의 성적 욕구를 극단적으로 규제하는 가부장제의 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성욕도 배고픔이나 갈증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기체 보존을 위한 생리적 현상으로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가부장제가 고착화된 자바사회에서의 여성의 성적 욕구는 결혼이라는 사회관습이나 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을 그는 “결혼을 우선적인 매춘”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남자만이 여성에게 성 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 여자가 남자에게 성 관계를

요구하면 창녀라는 사회적 인식을 거부한다.

내가 숲속에서 거인과 사랑을 나눈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은 나에게 두 번째 충고를 해 주었다. 처녀성은 남편에게 받치는 여자의 선물이며 코처럼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것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깨져버릴 거라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낯선 도시로 버려지기 전날 나는 결심했다. 내가 사랑하는 거인에게 처녀성을 주겠노라고. 마지막 날 밤 분홍빛 달밑에서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찻숟가락으로 그것을 찢어 버렸다. 흡사 붉은 거미집 같았다(아유 우따미 2009:188).

도시에서 아버지는 밤마다 나를 침대에 묶어놓고 사랑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첫째, 남자만이 여자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다. 남자를 쫓아다니는 여자는 틀림없이 창녀이다. 둘째, 여자는 자신의 몸을 합당한 남자에게만 받쳐야하고 남자는 그의 재산으로 그녀를 부양해야한다. 그것을 결혼이라 칭한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나는 결혼을 우선적인 매춘으로 여기게 되었다(아유 우따미 2009: 18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유 우따미는 가부장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여성으로서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독립된 삶을 갈망하는 인물로 사쿠타라를 제시하고 있다. 사쿠타라는 유학비자양식을 기재할 때 이민국직원이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하라고 강요하자 “왜 나의 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일부로 소유하려는 것일까?”(아유 우따미 2009: 95)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비자발급양식에 아버지 이름을 기재하지 않기 위해 그의 이름을 일부러 두 단어로 조작함으로써 가부장제에 반항하는 동시에 법적으로 성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사쿠타라는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했다고 창녀라고 인식하는 가족에 대해 “나는 섹스를 너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섹스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아유 우따미 2009: 127)라고 섹스에 대한 확고한 자기인식과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가족의 왜곡된 성의식에 저항한다. 사쿤탈라는 성관계시에 돈을 받지 않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때문에 창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사쿤탈라는 성관계가 단순히 감성적,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적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서 남성의 특권화 내지 물신화된 성적 욕망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아유 우따미는 사쿤탈라와 대비되는 라일라의 인물을 통해 사쿤탈라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를 정당화한다. 즉, 사쿤탈라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성관계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인물의 이미지로 묘사한 반면, 라일라를 부모에게 순종적이며, 전통적 가치관을 따르고, 성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친구들의 염려와 생각을 의식하는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아유 우따미는 시하르에 대한 라일라의 ‘기다림’, ‘감격’, ‘키스해 줄 것’, ‘준비’, ‘첫 경험’ 등을 통해 성에 대한 라일라의 가치관과 행동에 가부장제가 어떻게 내재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몇몇 문학 비평가는 『사만』이 상업적 흥행을 위한 포로노물에 지나지 않는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그들은 서구식 관점에서 여성의 육체와 성을 지나치게 상품화하고 비하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가치관과 도덕관에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아유 우따미가 『사만』을 통해 수하르토 정권에서 금기시해 온 성 문제를 사회 전면에 끌어내어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점은 여성들에 대한 성적 차별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인간의 성은 남성만이 주도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는 “나는 결혼을 우선적인 매춘으로 여기게 되었다”처럼 결

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서 부부간의 성행위가 사랑과 존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남편의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행위는 가부장제하에서 남성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인식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속에서의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여성의 성적 욕구와는 무관하게 남성에 의한 일방적인 성행위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매춘행위로 인식한다. 이런 매춘행위는 성적 만족이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공포, 불쾌감, 수치심, 모멸감 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뉴욕, 1996년 5월 28일

내 이름은 사쿠타라. 아버지와 언니는 나를 창녀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내가 몇몇 남자, 몇몇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아버지와 언니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나도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나에게 삶이란 춤이다. 춤은 애당초 육체에서 시작된 것이다. 난 자와 정자가 자궁 속에서 결합한 후 40일이 지나면 신이 그 결합체에 숨을 불어 넣어 준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에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아유 우파미 2009: 174).

그리하여 나는 비자 신청을 포기하고 말았다. 왜 나의 아버지는 항상 나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 요즈음 점점 많은 자바 인이 네덜란드 인들을 흉내 내고 있다.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행복과 행운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준다. 얼마나 비뚤어진 것인가. 얼마나 덜떨어진 것인가. 과거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조부모님은 나의 아버지를 티민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학교수가 되기 직전 자신의 이름을 민토라하르조로 바꾸었다. 어머니는 어릴 적 이름이 좋다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다. 그는 귀족의 후손이자 노래하는 요정의 후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신의 이름을 마치 일생을 따라다니는 저주처럼 증명서의 납봉인과 함께 법원 사무실에서 부여받는다. 왜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가? 왜 어머니의 이름은 안 되는가?

결국 내가 그 거인의 나라에 가는 것은 성사되지 않았다(아유 우  
따미 2009: 207-208).

아유 우따미는 수하르토 정권이 가부장제를 정권유지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사회에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시켜 여성의 성을 남성의 성에 종속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가부장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성의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회복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성의 주체로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종속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남성과 동등한 전문직과 경제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는 『사만』에 등장하는 4명의 여성<sup>11)</sup>을 그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 2. 권력남용과 정경유착

아유 우따미는 『사만』에서 수하르토가 정경유착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사업의 이권과 공공개발권한을 친인척 및 권력 동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인도네시아의 제3의 경제체제로서 소위 ‘수하르토노믹(Soehartonomik)’라고 주장한다(Zurmailis

11) 라일리는 전문 기자로서 소위된 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인물이며, 야스민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인물이며, 콕은 부모의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활동하는 인물이며, 사쿰탈라는 현대예술을 공부하기 위해 뉴욕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이 4명의 인물의 공통점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현대 여성으로서 전통적인 가부장제를 배격하고 여성의 성의 자기 결정권을 추구하고, 권력남용으로 인한 부정과 비리에 저항하며,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다.

2009: 130). 그는 「템포」의 기자로서 수하르토 정권에서 자행된 권력남용과 정경유착을 파헤치면서 얻은 자료들을 그의 소설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소설작품 『사만』에서 수하르토 정권이 1993년 캐나다에 본사를 둔 석유기업인 텍스코일(Texcoil)사에 아남바스(Anambas)의 나투나 섬 인근 석유채굴권을 넘겨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아유 우따미 2009: 16-39). 수하르토 정권하에서 광업 에너지청 고위관료인 로사노의 아버지는 나투나 섬의 석유채굴허가권을 잡음 없이 텍스코일사에 넘겨준 대가로 아들인 로사노를 미국 유학은 물론 나투나 석유채굴 책임자로 만든다. 수하르토 정권에서 자행된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불법적인 정경유착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손실이나 국민의 희생을 불러온다. 예컨대, 석유채굴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또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로사노가 단지 광업 에너지청 고위급 인사의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석유채굴 책임자로 임명되어 채굴 전문가인 시하르의 이수 검층분석 결과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석유채굴작업을 지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설마 노동운동을 위한 사진을 찍는 것은 아니죠?” 상냥하고 친절하면서도 거만한 특유의 어조로 로사노가 말을 걸었다. 시하르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로사노는 광업 에너지 청 고위급 인사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은 텍스코일사의 배려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고, 지금 이 회사의 자리를 보장 받았지. 나투나 섬의 석유 채굴 허가를 잡음 없이 넘겨준 그의 아버지에 대한 보상으로 말이지.”라고 시하르는 말했다(아유 우따미 2009: 24-25)

다시 시하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물러 선듯 목소리가 사뭇 누그러졌다. “본사에 전화할 시간을 주게나.” “안돼.” 로사노가 잼싸게 전화기를 붙잡았다. “네 이름은 이미 삭제됐어. 너는 이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어. 내일 헬기가 오기 전까지 밥 먹고 자는 것은 네 맘이고, 싫으면 굶든가.” 로사노는

다시 사령관 같은 얼굴로 이맘을 돌아보았다.  
“기계를 돌려!”  
“차노, 당신 미쳤군!”  
시하르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 전화기를 찾았다(아유 우따미  
2009: 28).

아유 우따미는 석유채굴에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로사노가 나투 아섬 석유시추 공사장에서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3명의 인부를 죽이거나 부상시킨 결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권력과 유착된 텍스코일사가 로사노를 탈랑아티스의 한 석유 시추현장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현실을 고발한다. 더욱이 로사노가 탈랑아티스의 석유 시추현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나투아섬에서의 잘못에 대한 시인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는커녕 오히려 처녀를 강간하고 살해하여 그 시체를 도랑에 버렸다는 범죄혐의를 받게 됨으로서 인도네시아 권력 특권층의 비도덕성과 성적 욕망의 타락상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정경유착기업인 텍스코사나 로사노와 같은 권력 특권층이 치외법권적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도 권력관계로 면제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유 우따미는 인도네시아의 특권층 사회에 폭넓게 만연된 부조리한 권력관계를 텍스코사와 로사노의 범죄행위를 통해 고발하는 동시에 정경유착기업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빼앗긴 수 백명의 주민이 주권재민의 수호를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경유착기업과 로사노, 그리고 주지사 같은 권력 특권층이 부조리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주민의 인권유린과 증거인멸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주민의 힘으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함을 일깨운다. 그가 내세우는 사회정의를 바로 인도네시아인들이 지켜야할 ‘국가 5원칙(Panca Sila)’<sup>12)</sup>



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라일라는 자카르타의 사회봉사기관(LSM)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만나 나투아섬 석유 시추공사장에서 벌어진 인명사건을 신문매체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한다. 또한 라일라는 변호사인 야스린과 법률 상담기구(LBH)의 도움으로 정경유착 기업의 불법자금과 아버지의 권력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로사노를 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한다.

재판이 3개월가량 진행되었을 때, 로사노는 하심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탈랑아티스의 한 석유 시추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주민 수 백명이 작업장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들은 횃불과 기름등잔을 들고 있었다. 그 빛으로 벽, 탑, 나무들에 사람들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져 흔들거렸다. 그들은 로사노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작업장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증오하는 그가 마을 처녀를 강간한 후 살해했으며, 그녀의 시체를 야자 농장 접근로 주변 도랑에 버렸다는 것이다. 도랑에 그녀의 주검이 있었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두 명의 증인에 따르면 그녀가 로사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아유 우따미 2009: 57-58).

수하르토 정권에서 1960년대 말에 실시한 이주정책과 소작농지 원사업이 자카르타의 인구 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아유 우따미는 이 정책은 사실 “자카르타의 빈민지역인 반따르그방처럼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빈민들과 수로빠띠 공원에서 무위도식하는 실업자들을 없애기 위한 조치에 불과 하였다”라고 주장한다(Utami 1998: 51). 이들의 일부가 수마트라

---

12) 인도네시아의 국가이념인 판차실라(Panca Sila)는 1946년 6월 1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그 다섯가지 국가 이념은 신앙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인본주의, 사회정의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사회정의주의는 보리와 목화로써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륙지역으로 이주되어 천연자원개발에 동원되었고, 정경유착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래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유 우따미는 이주정책과 소작농지원정책이 순수하게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정경유착기업의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구조적인 노동착취와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했다고 주장한다. 9'30사건<sup>13)</sup>을 수카르노와 연계시켜 정권을 강제이임 받은 수하르토 정권은 군의 지지를 받아 취약한 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군 퇴역장성들에게 주지사의 자리를 보존해 주었다. 최고 권력자인 수하르토와 긴밀한 권력관계를 맺고 있던 주지사는 무소불의의 권력으로 주민들의 고무농장을 야자농장으로 전환하라는 명령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ALM사로부터 이권을 챙기는 모습은 전형적인 권력과 기업 간의 정경유착이자 권력남용임을 보여준다.

위스는 걱정스럽게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사실 그동안 그는 많은 것을 기록해 놓았다. 그는 정부의 '소작농핵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주한 세이 콤방의 농민들이 오히려 고무회사에서 씨와 비료, 땅을 개간하는 비용을 빌리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25년 동안 500만-900만 루피아를 분할 지급해야 했다. 때문에 매년 화상에 납품하는 고무 유액 판매 수입액의 30퍼센트는 빚을 갚는 데 충당되었다. 하지만 고무가격 하락의 여파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고무 유액 1킬로그램 당 가격이 500루피어도 되지

13) 1965년 9월 30일 사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일어난 9'30사건은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 군부의 주도권을 사전에 제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는 의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대통령 경호부대의 운퐁(Untung)중령이 PKI의 사주를 받아 좌경성향의 장교와 이들 휘하의 좌경군부대를 동원하여 일으킨 쿠데타였다. 그러나 그 당시 육군소장이며 자카르타 방위전략사령관이었던 수하르토(Suharto)가 쿠데타를 제압하고, 1967년 3월 12일 국민협의회 임시특별총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아유 우따미의 시각은 수하르토가 9'30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카르노의 권력을 탈취하였기 때문에 수하르토 정권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혜택을 과도하게 베풀었고 권력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본다.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높은 가격을 쳐 주고 쌀이나 농사용품을 외상으로 대주는 중개인과 거래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자 회사 경비원들이 벽촌 구석까지 단속을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게 최근 마을 사람들이 푸념을 늘어놓게 된 원인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번 단속이 겁주기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아유 우따미 2009: 122-123).

그리고 그들은 짧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주지사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들 중 한사람이 주 정부의 레터헤드가 인쇄된 종이를 꺼내 들이밀었지만 안손에게 넘겨주지는 않았다. “1989년 주지사령에 따르면 이곳 세이 쿵방지역 이주민 거주지는 야자 농장으로 전환되어야 하오. 야자 농장 건설을 위한 주계약자도 ALM사로 이미 지정되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혼연실을 둘러본 뒤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보며 다시 안손 쪽을 돌아보았다. “ALM사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마을은 이곳뿐이요.”(아유 우따미 2009: 137).

수하르토 권력과 유착된 기업들이 경작지를 인도네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정경유착기업들은 수하르토 권력의 동업자인 주지사에게 산림보호지역, 지역사회 토지, 그리고 주민정착지역을 경작지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지역민들이 이를 반대하거나 저항할 경우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Zurmailis 2009: 129). 그 사례가 바로 루북 란따우 이주민들의 반대를 진압하기 위한 마을 방화사건이었다. 아유 우따미는 신부인 위스와 지역민인 세룩의 목격담을 통해 이주민들의 삶을 유린하는 공권력과 그와 연계된 정경유착기업들의 주민착취와 인권유린 현장의 참상을 드러낸다. “그 회사의 우두머리들은 우리들을 파괴하고, 훔치고, 강간하고. 그들은 정말 나쁜 새끼들이예요”(아유 우따미 2009: 143). 그는 공권력과 정경유착기업들의 횡포, 테러, 강간 등 인권유린이 전 지역에서 폭넓게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스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루부크란타우는 야자 농장으로 바뀌는 것에 찬성한 마을들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불도저가 고무나무를 쓰러트리기 시작했다. 농장 일꾼들이 잘린 나무의 밑동 부리를 태울 때 나는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마을은 고립되었던 것이다. 마을이 테러로 뒤숭숭해졌다. 처음에는 멧돼지가 습격할 것처럼 쑥대밭이 된 어린 고무나무들이 아침마다 발견되었다. 그러더니 가축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도로는 통나무로 막혀 버렸다. 급기야 물레방앗간이 망가졌고 우뻑이 강간을 당한 것이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과연 언젠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아유 우따미 2009: 142).

“이건 우리의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네덜란드 놈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심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합니다!” 콧수염도 나지 않은 젊은 남자의 입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위스는 세록이라는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껏 그 청년을 매사에 순종적인 제분소의 한 일꾼으로만 알았다. 도대체 그는 어디에서 이런 말들을 알게 된 것일까?(아유 우따미 2009: 146).

아유 우따미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과 강간, 그리고 고문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수마트라 지역사회는 미래에 대한 삶의 희망과 믿음이 사라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안손의 증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안손은 부인과 동생이 당한 강간으로 인해 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 상실감은 공권력과 정경유착기업에 대한 분노로 전이되고 투쟁의식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같은 맥락에서 위스에게 현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허위 자백을 받기 위해 가해지는 다양한 유형의 고문, 즉 담뱃불로 지지거나, 손가락을 조이거나, 목에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주먹

질과 밭길질을 예사로 하는 공권력의 인권유린 행위는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되는 범죄의 사각 지대였음을 고발하고 있다. 아유 우따미는 인도네시아 사회에 만연된 강간, 테러, 폭력, 고문 등에 대한 법적용과 처벌이 공권력의 편익에 따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똑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권력이나 지위에 처벌이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런 부조리한 사회현실에서는 권력자들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죽일 수도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안손이 손전등을 비추며 집안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의 아내는 발가벗겨진 채였고 바닥에는 농장 경비원의 정복 하의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 졸렸다가 방금 풀려난 듯 심하게 기침을 해 대며 울고 있었다. “두 명이었어요.” 가까스로 그녀가 말했다. 부엌에서 강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숨어 있던 한 사람이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집은 이미 주민들에게 포위된 상태였다. 순식간에 주민들의 손에 한 남자가 붙잡혀 혼연실로 끌려 들어왔다. 바지도 채 입지 못한 상태였다. 안손이 아내 넓적다리에 묻은 정액 찌꺼기를 닦아 내는 것을 보면서 위스는 가슴이 미어졌다(아유 우따미 2009: 148-149).

그들은 때때로 그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손가락을 조이거나, 가슴 이외의 부위를 채찍질하거나, 목에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했다. 주먹질이나 밭길질은 예사였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덜 고통스러운 것은 없었다. ... 너는 농민들 틈에 세력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 틀림없어! 너는 합법적인 현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지!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지만 그들은 또 다른 자백을 요구하며 고문을 계속했다. 줍틀에 옥죄인 손발 발은 우뼀을 위해 농장을 세운 위스의 신념을 무너뜨리곤 했다. 그때마다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은 결국 그로 하여금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지어내도록 만들었다(아유 우따미 2009: 157-158).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도네시아는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시계추처럼 법이 왔다 갔다하는 불확실성이 가득 찬 곳이야. 한편으로는 비효율성 또는 혐오감이 팽팽해 있는 곳이지. 사람들은 그걸 ‘정책’이라고 부르지. 그런 가운데 ‘준법 질서 확립’ 이면에는 ‘지나침’ 또는 ‘과도한 행위’가 존재하고. 사람마다 대접이 같을 수 없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대접이 다르니까. 권력자들은 사람을 살 수도 있고 가지고 놀 수도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과 흥정도 할 수 있고, 간혹 심하게 잘난 척하는 정부 관리들한테는 장난감이 될 수도 있지. 일평생 희생자 신세로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야(아유 우따미 2009: 249).

수하르토 정권기인 1974년에 발생한 ‘말라리(Malari)’ 사건<sup>14)</sup>은 일본의 자본과 부조리한 권력이 야합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은 부조리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인종적인 분노로 돌렸고, 그 결과 화교(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들의 희생이 커졌다. 우따미는 수하르토 정권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민감한 인종문제를 정권의 편의에 따라 자위적으로 다루어 왔기 때문에 말라리 사건이 과거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 중인 연속성을 지닌 사건으로 보고 있다. 화교에 대한 탄압과 화교에 대한 동화정책을 민족통합과 정권유지의 한 방편으로 유지해 왔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화교와 원주민(인도네시아인)간의 갈등, 테러, 방화, 살해 등이 빈번히 발생해 왔음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아유 우따미는 『사만』을 통해 수하르토 정권이 말라리 사건의 본질을 은폐

14) 말라리(Malari)사건은 1974년 1월 15일-16일 사이에 일어났던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인 Malapekata Lima Belas Januari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 시위사건은 일본의 수상인 다나카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맞추어 인도네시아 정치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규탄한 것이었고, 이를 보도한 일간지 「인도네시아 라야(Indonesia Raya)」를 비롯하여 11개의 일간지와 1개의 시사잡지가 정간되었다.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종문제를 부각시킨 점과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경유착과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은폐한 점 또한 야만적인 권력남용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사실 6,000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시위는 큰 호응을 얻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시위치고는 엄청난 규모였어. 특히 군중 공포증에 시달리는 군 병력이 보기에는 더 어마어마했겠지. 하지만 시위가 인종차별의 양상을 보이고 희생자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곧바로 외면하기 시작했어. 나는 화교 사업가의 죽음이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어. 사전에 오랫동안 권리를 침해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태는 억눌렸던 분노가 얼마나 쉽게 인종적 분노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군중심리의 병폐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생각해. 운집한 수천명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특유의 심리상태에 빠진 집단으로 변해버려 목소리가 찌렁찌렁한 앞잡이(앞잡이가 아니라도 상관없지만)가 침투해서 확신에 찬 고함을 지르면 군중은 어느 것이 양 치는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도 못한 채 개를 따르는 양의 무리처럼 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 입에 늘 오르내리는 말라리 사건이잖아! 그때도 중국인들의 가게를 불태워라, 일본산 자동차를 부숴버려라 외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수백명이 우르르 몰려가 그 짓을 했지 (아유 우따미 2009: 251).

#### IV. 나가는 말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와 동시에 출판된 아유 우따미의 『사만』은 인도네시아 전통사회가 추종한 가부장제와 수하르토 정권의 부조리한 권력남용 대한 비판정신을 보여줌으로서 사회변혁의 아이콘으로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유 우따미는 저널리스트로서 수하르토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탄압과 권력남용, 그리고

정경유착에 맞서 우탄까유(지하투쟁단체)에 가담하여 민주화 투쟁을 벌였고, 또한 국가통합과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미명하에 가부장제를 강화하여 남녀의 평등성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항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 언론, 정치, 사회, 인권 등의 민주화 투쟁에 가담하면서 경험한 부조리한 현실을 소설작가로서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구성과 장치 속에 녹여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꽃피문학’의 탄생이었고, 페미니즘 문학의 부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유 우따미는 수하르토 정권이 국가통제와 정체성을 위해 낡은 전통적 가치인 가부장제를 강화시킴으로서 여성의 인권과 성의 억압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사만과 4명(사쿤탈라, 라일라, 야스민, 콕)의 신세대 여성 인물들의 인식, 행동, 관계 등을 통해 재현해 내고 있다. 사만(위스)은 종교와 신앙의 가치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인간의 삶과 유리되었을 때 빛을 잃게 된다는 인식 때문에 소시민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 투쟁한다. 투쟁과정에서 사만은 종교의 가치관과 현실의 가치관 사이에 내적·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신교육을 받은 4명의 신세대 여성은 전문직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이 남성이나 부모의 종속물이 아니며,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사쿤탈라와 거인, 라일라와 시하르, 사만과 야스민 등의 성 인식과 성 관계를 통해 드러낸다. 예컨대, ‘결혼을 위선적인 매춘’이라는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아유 우따미는 사회적인 제도보다는 성에 대한 환경과 인식이 더 중요하며, “처녀성을 남편에게 받치는 선물”이라는 사쿤탈라 부모의 충고에서도 남녀의 성의 평등권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아유 우따미는 수하르토 정권에서 자행된 권력남용과 정경유착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손실과 국민의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을 나



투나 섬과 탈랑아티스 지역의 석유채굴과정을 통해 드러낸다. 즉, 권력 남용과 정경유착으로 인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로사노가 텍스코일사의 석유채굴 책임자로 임명되어 다수의 인명사건이 발생한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에너지 청의 고위관료인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탈랑아티스의 석유시추 현장의 책임자로 임명된 로사노가 주지사와 정경유착기업의 권력과 야합하여 위스(사만)을 고문하고, 안손 부인을 강간하고, 마을을 방화하고,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행위가 만연된 현실에서 그는 권력남용과 정경유착의 폐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드러내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아유 우따미는 가부장제와 여성의 성 문제는 수하르토 정권에서 국가 통제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부장제가 인도네시아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그는 4명의 신여성들이 성에 대한 인식과 담론,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 남녀평등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권력남용과 정경유착으로 파생되는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처방으로 언론의 감시와 시민연대 강화, 그리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수하르토 정권, 권력남용, 정경유착, 가부장제, 여성의 자기결정권

〈참고문헌〉

- 아유 우따미. 전태현 역. 2009. 『사만』. 서울: 청년사.
- Faruk. 2004. "Tubuh, kebudayaan dan Seksualitas." *Seks, Teks dan Konteks: Tubuh dan Seksualitas dalam Wacana Lokal dan Global*. Bandung: Kelompok Belajar Nalar.
- Hayati, Istiqomatul. 2000. "Novel Saman Karya Ayu Utami: Analisis Tema." Skripsi. Yogyakarta: Universitas Gadjah Mada.
- Marching, S. T. 2007. "Description of Female Sexuality in Ayu Utami's Saman." *J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8(1).
- Pujiharto. 2002. "Keposmodernan Novel Saman." *Laporan Penelitian*. Yogyakarta: Universitas Gajahmada.
- Rengganis, Riris. 2001. "Seksualitas dalam Saman dan Larung Karya Ayu Utami: Sebuah Tinjauan Psikoanalisis Lacanian." Skripsi. Yogyakarta: Universitas Gadjah Mada.
- Sears, Laurie J. 2007. "Reading Ayu Utami: Notes toward a Study of Trauma and the Archive in Indonesia." *Indonesia* 83.
- Setiawan, Sigit. 2001. "Analisis Struktur Naratif Novel Saman." Skripsi. Yogyakarta: Universitas Gadjah Mada.
- Utami, Ayu. 1998. *Saman*. Jakarta: KPG(Kepustakaan Populer Gramedia).
- \_\_\_\_\_. 2001. *Larung*. Jakarta: KPG(Kepustakaan Populer Gramedia).
- \_\_\_\_\_. 2008. *Bilangan Fu*. Jakarta: PT Gramedia.
- \_\_\_\_\_. 1998. "Perihal Satu, Empat, bahkan Lebih, Parodi." *Utan Kayu: Tafsir dalam Permainan-Karya Pilihan Utan kayu*. Jakarta: Yayasan Kalam.

『사만』에 나타난 아유 우따미의 현실인식에 관한 고찰 197

Wahyudi, Ibnu. 2005. “Wanita Penulis Novel Pasca Saman.” *Srintil* 8.  
Zurmailis. 2009. *Novel-Novel Pemenang Sayembara Dewan  
Kesenian Jakarta Era Reformasi: Kajian Strukturalisme  
Genetik*. Yogyakarta: Universitas Gadjah Mada.

(2012. 03. 30. 투고; 2012. 05. 09. 심사; 2012. 05. 31. 게재확정)

<Abstract>

##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the Actuality Represented in Ayu Utami's Saman

Kim, Jang Gye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aman*, a novel written by Ayu Utami, has been recognized as the symbol of the politico-social changes, which began to occur since the collapse of Suharto's New Order regime in 1998. In the novel, Ayu Utami showed the spirits of resistance against various absurd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during the New Order era such as pressure on discussion, abuse of power, politics-business collusion, patriarchy, and suppression of gender. In representing those spirits, Ayu Utami used unconventional structure-making, fresh feedback and multilayered descriptions of the figures, which brought her a fame as the pioneer of the Fragrant Literature (*Angkatan Wangi or chick-lit*).

Ayu Utami particularly criticized that, under the name of sustaining the national integrity and identity, the New Order regime enhanced patriarchal system, which consequently infringed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Ayu Utami argued that the abuse of power and politics-business collusion, which were prevalent during the New Order period, destroyed lives of the masses and the

『사만』에 나타난 아유 우따미의 현실인식에 관한 고찰 199

Indonesian society.

***Key words:*** The Suharto Regime, Abuse of Power, Politics-Business  
Collusion, Patriarchism, Women'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